

# 효율적인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 편집부

「지금은 강제적인 측면보다 환경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ISO 14000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문제 만큼은 사실 법적 규제와 함께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라며 한국표준협회 환경인증지도교육실 이규태 실장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ISO 14000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금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로부터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경영혁신 시스템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러한 ISO 14000에 대한 지도·교육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인증지도교육실을 찾아 '96년도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환경관리란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적규제치 이내로만 배출하도록 하는 관리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변화하여 경영합리화 수단으로 PPMS(Products and Process Mass of System)방식도 도입, 원·부재료 투입부터 공정과



▲ 교육내용을 설명하는 환경인증지도교육실 이규태 실장

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에 대한 법적인 틀이 마련되었고 ISO 14000의 제정·공포가 곧 현실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ISO 14000 규격의 인증을 위하여 경영체제를 정비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SO 14000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영국 규격인 BS

7750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올 6월 ISO 14000이 제정·공포되면 ISO 14000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표준협회 환경인증지도교육실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하여 ISO 14000을 인증받기 위한 세부 규격에 대한 교육·지도를 하고 지도 감독자를 양성해 내고 있다.

ISO 14000 환경경영표준체제(Roadmap)의 중심은 경영시스템 즉 ISO 14000과 ISO 14001이다. 이것은 원칙, 시스템, 지원 기술에 대한 일반 가이드라인과 ISO 14000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규격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적인 것으로 평가 및 심사기법과 제품지향적 지원기법이 있고 보충적인 것으로 ISO 14050과 ISO 14060이 있다.

그런데 환경친화기업이라든가 ISO 14000인증 등은 중소기업 위주라기 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아직까지 국내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이다. 즉,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업경영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경영체제에 외국의 경우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낙후되고 경제적인 기반이 미약한 중·소규모의 업체들에게는 먼 훗날의 얘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 환경경영체제가 확산되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아 갈 것입니다.

몇 년전 ISO 9000의 실행시 원활한 시스템을 위해 경영체질 개선에 약 5년 정도 매달려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ISO 14000의 인증마크가 없는 기업의 제품은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은 각 협력 업체나 하청 업체의 부품 등이 인증마크가 없다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만간 영세 업체에서도 이러한 환경경영체제와 함께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이실장은 한편, 지금은 법적으로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규제나 자격 요건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성 보다는 환경경영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하향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환경인증지도교육실의 활동기간은 그리 오랜 경륜을 쌓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4년 이상의 경력자들인 기술사나 심사원 자격을 갖춘 상근 교육원이 5명, 상임 교육원 7명으로 1달에 평균 3번 정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기교육은 환경경영심사원의 양성과 ISO



▲ 환경인증지도교육팀

14000 실무교육, ISO 14000 경영자 세미나, 환경친화기업 추진 실무, LCA(전생애평가) 추진실무 등 13개 과정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보통 1박 2일에서 3박 4일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데 전국 13개 지부와 1일 850명이 숙박 가능한 협회 연수원이 있어 교육에 따른 여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는 외국의 전문가나 석학들을 강사로 초빙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점차 국내에서 충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내 사정에 맞추어 현실성을 고려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95년 4월부터 지금까지 8개 업체에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이러한 컨설팅은 6개월~1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위탁사내교육, 해외연수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환경보호요구를 만

ISO 14000의 인증마크가 없는 기업의 제품은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만간 영세 업체에서도 이러한 환경경영체제와 함께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족시키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외부에 보증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기업들.

하지만 환경경영체제의 도입단계라 어려움도 많을 수 밖에 없다.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적인 체제 구축에 환경경영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볼직하다.